시련 속에 크는 '아기 호랑이' 최원준

빠릿빠릿 움직여서 우승에 힘 보태고파

빠른 발·맞추는 재주 '엄지척'…수비·주루는 '글쎄'

"실수해도 괜찮다니 마음 편해져…자신있게 하겠다"

시련 속에 크는 '아기 호랑이' 최원준이다.

KIA 타이거즈는 2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추억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했다. V10을 이뤘던 2009년에 착용했던 '챔피언스 저지'를 입고 뛰는 '고 투게더 데이(GO T09ether Day)' 행사가 열린 것이다.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나지완을 필두로 안치홍, 양현종, 정용운 등 4명의 2009년 우승 멤버에게는 특별했던 유니폼.

'막내' 최원준에게도 의미 있는 유니폼이다. 광주 출신인 아버지 영향을 받아 타이거즈를 응원했던 최원준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텔레비전을 통해 2009 한국시리즈를 지켜봤다.

좋아하는 선수들이 우승하는 게 그저 좋았던 초등학생은 8년이 지난 2017년 '호랑이 군단'의 일원으로 '챔피언스 저지'를 입었다.

최원준은 "처음 프로에 와서 신기했었다. 좋아했던 선수들과 함께 야구를 하는 게 신기했다"고 팬에서 선수가 되어 그라운드를 누비는 소감을 밝혔다.

최원준은 KIA가 야심적으로 키우는 '될성부른 떡잎'이다. 빠른 발을 보유한 최원준은 때리는 재주까지 타고났다. 김기태 감독은 물론 최원준을 지켜보는 선배들 모두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하지만 미완의 대기다. 타격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수비, 아직은 주루에서 실수도 잦다.

컨디션이 떨어진 김선빈을 대신해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던 지난 22일, 최원준은 이날 팀이 기록한 5개의 안타 중 2개를 책임졌다. 그러나 안타를 치고도 웃지 못했다.

선두타자로 나와 중전안타를 때렸던 5회 견제사로 물러난 최원준은 0-1로 뒤진 9회 1사에서 다시 한번 안타를 기록했다.

최원준의 안타로 마지막 불씨를 살리는 것 같았지만 경기는 순식간에 끝났다. 1번 이명기가 때린 타구가 외야로 향했지만 중견수 글러브로 향하고 말았다. 그리고 성급하게 스타트를 끊었던 최원준이 급히 1루로 돌아갔지만 발보다 공이 빨랐다. 그렇게 0-1로 경기가 종료됐고 KIA의 연패가 기록됐다.

최원준은 23일 "너무 욕심을 부렸다. 하던 대로 해야 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전날 자신의 주루플레이 실수에 관해 이야기했다.

의욕 넘친 막내의 실수였기에 사령탑도 그저 웃을 뿐이었다.

김기태 감독은 "어제 상황에 대해 안 물어봤다. 인사를 하고 눈을 쓱 피하더라"고 웃으며 "얼마나 홈에 들어오고 싶었을까"라는 말로 막내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김 감독에게는 어리지만 강하게 키워야 하는 호랑이 새끼다. 최원준의 생애 첫 만루포가 터졌던 지난 5월 28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김 감독은 세 차례 만루 찬스를 날린 막내를 끝까지 믿어줬다. 그리고 최원준은 부담감을 이겨내고 끝내기 만루홈런이라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최원준은 "코치님이나 선배님들 모두 자신 있게 하라고 하신다. 처음에는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부담도 되고 두렵기도 했다. 혼자 주눅들기도 했는데 다들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해주셔서 편하게 하고 있다"며 "1군 선수가 아니고 내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막내답게 최대한 자신 있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우승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wool@

최형우 "대구만 더운게 아니예요"
김기태 "호투 팻딘, 감독으로써 미안"

덕아웃 톡톡

▲대구가 더운 게 아니예요= 대구에서 오랜 시간 야구를 했던 최형우에게도 깜짝 놀랄 광주의 더위다. KIA는 주말 안방에서 후반기 첫 3연전을 치렀다. 주중 시원한 고척돔에서 경기를 치르고 온 선수들은 유난했던 주말 '찜통더위'에 곤혹스러워했다. 특히 21일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선수단은 올 시즌 가장 더운 날로 손꼽았다. 최형우는 "대구가 더운 게 아니다. 3연전 첫날은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선수들의 체력 관리 차원에서 덕아웃에 휴대용 에어컨 3대를 설치하는 등 더위 나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너무 빨리하려고 했다 = 마음이 급했던 임기영이다. 폐렴으로 잠시 선발자리에서 물러났었던 임기영은 지난 19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선발 복귀전을 치렀다. 이날 임기영은 107개의 공을 던졌지만 5.2이닝에서 등판이 끝났다. 선발로 6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지난 4월 12일 두산전(5이닝 3실점·1자책) 5월 12일 SK전(5.2이닝 4실점·1자책)에 이어 세 번째다. 임기영은 "어색하거나 긴장된 것은 없었는데 처음에 너무 빨리 공을 던지려고 했다. 그게 아쉽다. 다음에는 차분하게 경기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감독으로 미안하다 = 팻딘의 안타까운 호투였다. 잇단 부진으로 위기에 몰렸던 팻딘은 지난 22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며 반전을 이뤘다. 이날 6회까지 퍼펙트 행진을 했던 팻딘은 탈삼진은 12개를 뽑아내는 등 눈부신 피칭을 했다. 하지만 이날 팀은 0-1패를 기록했다. 김기태 감독은 "감독으로 미안했다. 좋은 경기를 해줬는데 승리투수가 안돼서 아쉽다"며 "올스타브레이크를 보내면서 코칭 스태프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편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고 한다며 달라진 팻딘에 대해 이야기했다.

▲빨리 사인 내줬지 = 23일 '팔색조'로 명성을 날렸던 조계현 수석코치가 배팅볼 투수로 나섰다. 이날 챔피언스필드 덕아웃을 찾았던 정회열 KIA 2군 감독은 공을 던지는 조 수석을 보고 "예전에 같이 완봉승, 완투승을 많이 만들었다. 포크볼을 장착하고 나서 정말 좋은 경기를 많이 했다"며 현역 시절을 이야기했다. 또 "당시 좋은 투수들과 경기를 많이 했다. 그날 바쁘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빨리빨리 사인을 내주기도 했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 FC '옐로 더비' 승…3연패 탈출

KEB 하나은행 K LEAGUE CLASSIC 2017

K리그 클래식 23R 홈경기
완델손 데뷔골…전남에 2-1

광주 FC의 완델손이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프로축구 광주 FC가 '옐로 더비' 승자가 되며 3연패에서 탈출했다.

광주 FC가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2017 K리그 클래식 23라운드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신고했다.

FC 서울전 3-2 승리 이후 상주 상무와 울산 현대에 발이 묶였던 광주는 전남과의 '옐로 더비' 승리로 한숨을 돌렸다.

전반전에 양 팀은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하면서 기회를 엿봤다.

전반 종료를 앞두고 광주에 호재가 찾아왔다.

전반 43분 완델손이 1대1 찬스에서 돌파를 하던 중 전남 수비수 토미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다.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토미의 퇴장이 선언됐다.

수적 우위를 점한 광주가 전반 종료를 앞두고 거세게 전남 골문을 두드렸다.

'명품 프리킥' 이종민이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으로 전남의 골문을 겨냥했다. 공이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몸을 날린 전남 수비수 이슬찬의 머리에 막히고 말았다. 맥긴도 왼발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지만 득점 없이 전반전이 끝났다.

그러나 득점포 가동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후반 3분 기다렸던 완델손의 데뷔골이 터졌다. 송승민의 힐패스를 받은 완델손이 오른발로 상대 골키퍼 다리 사이로 공을 밀어 넣으며 골대를 갈랐다.

선제골 이후 광주는 전남을 압도하며 추가골을 노렸다. 그리고 후반 34분 수비수 김영빈의 감각적인 골이 터졌다.

김영빈은 왼쪽 측면에서 이민기가 올린 크로스를 받아 그대로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이내 전남의 골망이 출렁였다. 서울과의 경기에서 2년 만에 골 맛을 보며 승리를 이끌었던 김영빈은 이번에도 승점 3점을 위한 귀한 골을 보탰다.

후반 37분 잠시 위기도 있었다. 전남 김영욱의 코너킥이 광주의 장신 수비수 본즈의 머리에 맞은 뒤 그대로 골대로 빨려들어가면서 자책골이 기록됐다.

그러나 광주는 이후 추가 실점 없이 남은 시간을 잘 지키면서 값진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배구 "우승 한 걸음 더" 그랑프리 2그룹 1위로 4강 진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국제배구연맹(FIVB)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한국과 폴란드의 경기. 득점에 성공한 한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구여제' 김연경(중국 상하이)을 중심으로 뭉친 '황금세대'가 그랑프리 2그룹 1위로 결선(4강)에 진출했다.

홍성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3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7 그랑프리 세계여자배구대회 제2그룹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난적 폴란드를 세트 스코어 3-0(25-23 25-20 25-23)으로 제압했다.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8승(1패)째를 챙긴 한국은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2그룹 결선은 29일(한국시간)부터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린다. 개최국 체코가 예선 4위와 준결승을 치르고, 1위 한국은 2위 팀과 맞붙는다.

22일 콜롬비아를 꺾고, 결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은 23일 마지막 경기에서도 김연경, 박정아(한국도로공사), 양효진(현대건설), 김희진, 김수지, 염혜선(이상 IBK기업은행) 등 주전을 대거 기용했다.

1세트 초반에는 폴란드의 높이에 밀렸지만, 6-9에서 폴란드가 실책 3개를 연거푸 범한 덕에 11-11 동점을 만들었다. 한국은 김희진의 서브 득점과 박정아의 오픈 공격으로 16-12까지 달아났다.

폴란드의 마지막 반격도 잘 막아냈다. 21-21에서 김희진이 오픈 공격을 성공하고, 김수지가 상대 주포 베레니카 톰시아의 오픈 공격을 블로킹했다. 24-23에서는 김연경이 퀵 오픈에 성공해 첫 세트를 끝냈다.

2세트에서는 김연경의 화력과 양효진의 높이가 빛났다.

김연경은 6-8에서 오픈 공격을 연거푸 성공해 8-8 동점을 만들었다. 염혜선의 서브 득점, 양효진의 중앙 속공, 김연경의 재치 있는 연타 득점, 양효진의 블로킹이 이어지며 한국은 13-8까지 앞섰다.

한국은 폴란드를 8점에 묶고 연속 7득점하며 2세트 승기를 굳혔다. 3세트 들어 김연경과 동료들은 더 힘을 냈다. 김연경은 9-9에서 오픈 공격을 두 번 연속 꽂아 넣으며 폴란드의 기를 꺾었고 20-20에서는 빈 곳을 노린 연타로 득점했다. 그리고 23-22에서 황민경(현대건설)이 오픈 공격을 연속해서 성공해 경기를 끝냈다.

이날 김연경은 양팀 합해 최다인 17점을 올렸다. 기분 좋게 예선을 마친 한국 대표팀은 26일 체코로 출국해 준결승, 결승을 준비한다. /연합뉴스